

## 김동완 행정부지사 취임



이완구 충남지사와 함께 민선 4기 중반기를 이끌 김동완(50)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3월 13일 도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행정부지사는 취임사에서 “행정부지사란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되 디지털 방식으로 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며, 화합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부지사는 1980년 행정고시(2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충남도 기획담당관과 급산군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장,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냈다. (대전=연합뉴스)

## 2008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확정

- '논산 대둔산·홍성 내현권역' 등 2권역 선정

충청남도는 2008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결과에 따라 '논산시 별곡면 대둔산권역' 과 '홍성군 구항면 내현권역' 이 농림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선정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개 권역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형 방식에 의거 마을주민,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도 5개 권역과 2006년도 2개 권역, 2007년도 3개 권역 등 10개 권역으로서 평균 74%의 진척율로 도내 곳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신규착수 예정권역인 ▲논산시 광석면 광석권역 ▲금산군 제월면 신안권역 ▲서천군 마서면 물버들권역 등 3개 권역에 대하여도 세부설계, 시행계획승인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조속 이행토록 하여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원기준은 권역당 3~5년간 권역의 규모에 따라 40~70억원 수준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80%와 지방비 20% 재원이 지원되며, 도내 총 대상 100개 권역에 대하여 2017년까지 7천억 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낙후된 농촌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삶의 터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 세계적인 '크리스탈 밸리' 종주지 실현 나서

- 산업체, 연구소, 행정기관 한마음로 대응책 강구

'소니와 샤프'가 LCD 10세대 라인 합작투자를 설립키로 공동 발표함에 따라(2월 26일자) 삼성전자 LCD 총괄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무부지사가 총괄하는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대응책에 나섰다.

2003년도에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삼성과 소니가 LCD 7세대에 뒤이어 8세대 라인에 대한 설비투자로 LCD패널 매출액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제1위의 매출액을 달성해오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소니는 자국(일본)내 샤프와 동맹을 맺으면서 10세대 LCD 패널에 대해서는 삼성과 합작투자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비춰지고 있어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삼성과 소니의 현 상황에 대한 道 차원에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원방안 및 중앙정부에 건의사항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강한 질책과 지시가 있었다.

이에, 채훈 정무부지사는 경제통상실장을 주축으로 산·학·연 전문 실무진 등 15명으로 하는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여 3월 4일 디스플레이센터(아산시 음봉면소재)에서 삼성전자 외 8개 업체(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부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삼성, 협력업체 등) ▲ 삼성·소니의

10세대 라인 LCD 패널 합작투자 무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협의 ▲ 道 차원의 지원사항 검토 ▲ 중앙정부에 건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종합적인 분석 내용으로는 ▲ 삼성전자·소니와의 10세대 라인 협력관계 무산으로 인한 피해 분석 ▲ 디스플레이 업계 동향(국내, 도내 부품업체) ▲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대응방안 파악 ▲ 도 차원의 지원방안 ▲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 등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충청남도도 디스플레이산업의 무궁한 육성발전과 세계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충남 디스플레이 기업체 협의회(가칭)'를 설립하여 전방산업인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TOP Maker를 확보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일본, 대만 등 LCD패널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도 박한규 경제통상실장은 "삼성전자와 소니와의 결별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및 주요장비 부품 소재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칭) 2010대백제전』 국제행사 타당성 입증

- 경제성 분석 및 행사주체, 개최시기 및 기간, 주요 행사구성 등 논의



백제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공주시와 부여군이 백제문화제를 통합,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가칭)2010 대백제전』을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하기 위하여 이완구 도지사, 공주시장, 부여군수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대백제전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2010 대백제전 타당성조사 연구에 의하면, 대백제전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경우 B/C(편익/비용) 비율은 1.02, 경제적 타당성 B/C 비율은 1.83으로 대백제전 개최의 타당성이 있으며, 385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7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69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종 보고 되었다.

충청남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월중에 문화관광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보고회에 이어, 행사 개최의 주요사항인 행사주체·개최시기 및 기간·행사의 주요 구성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가칭) 2010 대백제전’은 백제문화를 세계적인 명품 축제화 하기 위한 목적하에, 충청남도·공주시·부여군이 공동 주관으로 2010년 9월에서 10월중(50일간)에 199억 원의 규모로 공주와 부여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 및 충남방문의 해 선정을 추진중에 있어, 해외 방문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道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될 ‘2010 대백제전 기본종합계획 용역’에 대백제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 및 구체적 시행방안 수립 등 품격있는 행사 준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 백년대계 도청이전사업에 탄력 부여, 신도시건설 촉진

□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됨은 물론 2012년 도청이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 '08. 2.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195명중 182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은

- 본문 총 7장 42조, 부칙 3조로 제정되었는데, 그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①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국비지원 ② 입주시설 인센티브 부여 ③ 33개 인·허가 사항 의제 처리 ④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등 도청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폭넓게 담겨져 있다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 ①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비 부담 완화와 함께 적기에 재원조달이 가능해짐으로써 신도시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 ② 도청이전신도시 실시계획 인·허가시 적용될 주택법 및 도시개발법 등 무려 33개에 달하는 사항 모두를 의제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재정력은 물론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되었으며

- ③ 특히, 이전기관 시설비 용자·지원, 입주법인 및 단체 편의시설 설치, 조성토지 원형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 부여로 시설유치 촉진과 함께 인구유입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 ④ 도청이전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직업전환훈련, 소득 창출사업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도청이전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 ⑤ 신도시 특성에 맞는 학교설립안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한 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현재 연구용역 중인 도청이전신도시 교육특구와 접목시켜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명문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명문교육지구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도 관계관 의견과 향후 조치 계획

앞으로 충남도는 200만 도민이 함께 염원해 왔던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로 위임된 이전기관 이전비용 지원, 개발예정지구 주민지원대책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비확보 및 시설유치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도민들의 바람과 성원, 그리고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 합격점

- 12일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시연회 개최



충청남도는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이 구축,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업방향과 비전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총장, 보건의료분야 교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원격협진 시연회에서는 해상악화로 병원선이 이동진료를 나가지 못하여 삼시도 보건진료소에서 병원선에 원격진료를 요청한 경우도 포함 (이동진료차량→순천향대학 천안병원 / 병원선→순천향대학 천안병원)하여 원격협진 시연을 했다.

특히 이날 시연회에 참석하는 서울대학병원 김석화 교수 및 보건의료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u-헬스 기반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의 1, 2, 3차 의료전달체계에서 소외된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높여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21C를 대비한 차세대 보건의료서비스의 성공적인 모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의 현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의료법 등 현행 제도 하에서 u-헬스의 확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모델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충청남도는 도서지역 및 지리적 특성상 의료 접근이 어려운 오·벽지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의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u-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본격 가동 중이다



그간, 도는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한화S&C 등 13개 IT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07년 7월부터 정보통신부의 「복지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국비 4억 7천만원, 도 및 시·군비 7억 2천만원, 민자 13억 5천만원 등 총 2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병원선, 보령시 관내 도서지역, 청양군보건의료원(이동진료차량), 사회복지시설,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등 10개소에 '0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의료 취약지 주민에 대한 의로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형 u-원격영상진료”, “u-생활습관관리”, “u-만성병관리” 등 유형별 서비스 모델 3개를 선정 개발하였다.

또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황실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IT 업체인 “K3I”에 운영지원센터를 설치 장애 접수 및 진단 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구축된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시범사업을 소외된 취약지 도민들에게 새로운 의로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찬 도약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농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수준 높은 의로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 충청남도 인터넷방송국 2월1일 개국

- 생생한 일일 도정뉴스, 교양강좌 등 제공



충청남도의 각종소식을 신속하고 생동감있게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는 2월 1일 인터넷 방송(CN1 TV)을 개국하고 충남도정과 의정 및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도내 PC 보급률이 66.6%에 이르는 등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로 인한 여건 성숙에 따라 도민과 네티즌들에게 생동감있는 도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각각 (주)위더스텍과 (주)케이쓰리아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1년여 동안 인터넷방송 운영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해 12월 IP-TV 개념의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방송을 거쳐 시험운영을 지속해오며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2월 1일 개국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충남 인터넷방송(CNI TV)은 일일도정뉴스를 중심으로 도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도정브리핑, 강한 충남을 의미하는 충남포커스, 지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소식을 전달하는 매력충남,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UCC와 교양강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충남배움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남 인터넷 방송은 IPTV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 단순히 PC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이 아닌 TV를 통해서 도·의정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 및 영상정보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하면서 고급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한다.

이 밖에도 홍보프로그램으로 충남의 기업탐방과, 재래시장, 충남 느낌여행 등을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녀교육, IT강좌, 교양강좌와 이민 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 등을 제공하는 등 도민들이 안방에서도 생생한 도정을 접할 수 있으며, 참여마당과 게시판 등을 통해 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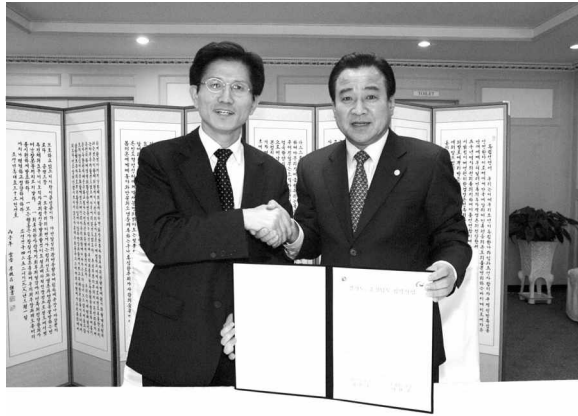
들도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이완구 지사는 “앞으로 지역 언론사 및 시·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네티즌들에게 보다 친숙한 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의 인터넷방송이 중부권 최고의 방송으로 사랑받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충청남도 인터넷방송(CNi TV)은 홈페이지 <http://tv.chungnam.net>에서 볼 수 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와 당진군에 설치 합의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1월 9일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김문수 지사와 만찬회동을 갖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추진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청사입지는 충남도지사가 추천한 지역에 입지 ▲初代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공동 임명 ▲개발계획의 조기확정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 등 이다.

이완구 지사는 청사의 입지와 관련, 당진군에 설립하는 것이 順理라고 밝혔으며 빠른 시일내에 당진지역에 설립되는 청사에서 충남은 물론 경기지역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업무까지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년에 시 승격이 예정된 당진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시 승격과 맞물려서 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의 서북부지역 발전에도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은 정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앞당기되 늦어도 7~8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초대 청장의 추천권은 경기도에 양보하고, 청사 위치를 당진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앞으로 당진군이 명실상부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은 이완구 지사가 태안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2박 3일간의 일본 환경성, 후쿠이현 방문 귀국길에 곧바로 이어져 배석자 없이 2시간 넘게 시종 웃음이 넘쳐 나오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동에서는 양도가 함께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 중앙 공동 대응, 청의 하 부조직, 향후 로드맵 등 여러 부문에 걸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토 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양도의 흔쾌한 합의는 지난해 11월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안시 양 도지사가 직접 세 세한 부분까지 설명함으로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공조에 이은 것이어서 2개 시·도 공동 추진 의 경우 흔히 있는 이해 충돌의 우려를 지휘부에서 직접 말끔히 씻어냄으로써 다른 시·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충남! 2020 비전과 종합발전방향 확정



‘충남’이라는 화폭에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그림을 그리면 ‘3×3의 田자형 개발축’의 형태가 디자인된다. 충청남도를 ‘3×3의 田자형 지역발전축’과 ‘4대 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북부권 편중 구조에서 지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지역발전방향의 기본내용을 담은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난 12월 28일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된 수정계획은 국가차원에서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도종합계획에 수용하면서 지난 2001년 제3차 도종합계획 수립이후 행정도시 건설, 도청이전 확정, 국가기간 교통망 변경, 환황해권 시대 개막, 주5일제 시행 등 지역 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본 수정계획 기본구상에는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부문별 계획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산업 육성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 충남 구현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계획에서는 평택~행정도시, 안성~행정도시, 보령~공주간 등 고속도로, 도청신도시에서 동·서·남·북측 고속화도로, 서해안 관광산업도로, 충청선(보령~조치원), 서해선(야목~예산) 등 철도, 보령신항, 대신항, 장항항 등 SOC 구축을 기반으로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 남공주 역세권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방산업단지 건설과 기호유교문화 유적정비, 한방 바이오밸리, 한산모시콤플렉스 개발 등 도내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활력증진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기간동안 84조 4,344억원이 투자되고, 부문별로는 사회인프라 구축 38.8%, 도시 및 지역개발부문 24.1%, 산업부문 16.6%, 문화 관광부문 8.4%, 환경부문 6.6%, 생활복지부문 3.1%, 자원개발 부문 2.4%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9조 2,634억원(46.5%), 지방비는 11조 5,733억원(13.7%), 민자 등 기타가 33조 5,977억원(39.8%)이다.

이와 같은 종합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목표년도인 2020년에 충남은 ▲인구가 2005년 198만명에서 250만명으로 ▲지역총생산액은 2005년 38조 1,400억원에서 98조 9,700억원, ▲1인당 GRDP는 2005년 1,952만 4천원에서 3,958만 8천원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 63.3%에서 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도에서는 내실 있는 도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0여명의 道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십 회의 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거쳐 그 시안을 마련하였고, 道홈페이지에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道의회 설명회,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계획에 반영하였다.

이후 중앙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도청신도시~천안·태안·평택·금산간 고속화도로', '서해산업선 철도' 등에 대하여 진통을 겪었으나 SOC사업에 대한 치밀한 대응논리 개발과 체계적 전략으로 대응하여 도 차원의 장기 발전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전개하였다.

이에 최종안에는 지역균형 발전, 도청이전 신도시, 서해안시대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등 충청남도가 요구한 안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도관계자는 “앞으로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충청남도의 미래상과 발전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와 시·군에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의 기본이 되면서 중앙정부에는 지역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되며, 민간 기업에는 지역개발 정보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행정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신도시·기업도시건설, 환황해권시대 개막 등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구도에 맞추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역동적 충남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